

농업 동향

국내최초 '농업부문 UN CDM 사업' 공식 등록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농어부문 최초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등록되었다.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온실가스 비감축의무국가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 사업등록자인 농업경영체는 향후 10년간 약 16,640tCO₂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이를 국제매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전력에 매진(2,492MWh/년)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와 퇴비, 액비를 생산하는 농림수산물부 지원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정읍 등 6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물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365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166.4천tCO₂를 감축할 계획이다. 향후 농림수산물부는 농림어업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함께 시설원예 및 육상양식장 등에 지열, 목재펠릿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년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 예산 금년보다 19% 증액

농림수산물부는 2013년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 예산이 전년보다 19.0% 증액된 2조 5,255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2013년 보완대책 예산안은 축산·수산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우리 농어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2013년 보완대책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축사, 양식장, 원예시설 등에 대한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였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전년 대비 30.9% 증액된 9,164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수출수요가 높은 원예품목 등에 대한 시설신축을 지원하고, 2012년 현장 농어업인들의 호응이 높았던 이차 보전(금리 1%)사업을 원예분야까지 신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등 축산위생과 관련된 제도변화 대응, 질병관리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예산을 확대 반영하였다. 또한 조사로 생산기반확충 사업 및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다.

셋째, 한국 농어업의 미래준비를 위한 성장 동력 확충사업 예산을 확대하였다.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글로벌 수출 종자개발 및 민간 육종 인프라 확충 등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사업예산을 확대하였다.

넷째,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153억원)과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173억원) 지원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